

일주문

- 천통사 예수재서 법문**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5월 23일 제주 천통사 생전에 수재 입재식에서 법문하고 3백여 명에게 보살계를 수계했다.
- 17일 포교사대학 입학식**
해철 한국불교포교사협회장은 17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포교사대학 2001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회한다.
- 청화 스님 초청 천도재**
정허 부천 죽림정사 주지는 16일 오후 1시 청화 스님 초청 유주주주 고희영가 합동천도법회를 봉행한다.
- 탈북자 실생활 체험행사**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7일 탈북자의 실생활 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이웃 작은 평화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 생활공예 공모전 대상**
운천 중앙승가대 스님(사회복지학과 2은) 한국공예디자인 협회의 생활공예 공모전에서 서각병풍으로 대상을 받았다.
- 제20회 일불문학상 수상**
신길우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센트럴시티 컨벤션홀에서 제20회 일불문학상을 수상한다.
- '목우자 지능연구' 출판회**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은 16일 오후 3시 불교대학 4층 법당에서 <목우자 지능연구>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불교학 연구 산실로 키울터”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재창립 혜거 스님



“발표위주보다는 의식 등 불교계 통일과 개혁이 필요한 테마를 정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지건 박사에 의해 1976년 창립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24일 오전 11시 금강선원에서 재 창립하는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 원장)은 “실용적인 학자들에게 불교가 쉽게 도전을 받지만 이에 대응하는 연구소가 없다”며 “월운, 각성 스님과 전통강원 강주 스님, 민홍구, 채병훈 교수 등 재가학자들을 모셔 전통불교연구원을 불교학 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연구원내에 원전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홍천에 있는 선문당을 연구원 수련 및 발표회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연구소가 흔히 겪는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화와 후원회 발족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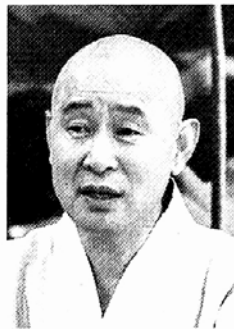
혜거 스님은 삼척 영사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현재 인터넷불교대학 교수와 불교방송 ‘자비의 전파’, ‘경전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13년간 금강정사에서 불경원전교육을 실시하여 불교전통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왔다.

한편 1976년 개원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10회에 걸쳐 불교학술회의 개최와 일본 인도학회 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올해 초 초대원장인 김지건 박사가 타계하자 김지건박사 유고집 발간을 준비하던 전통불교연구원 연구원들은 혜거 스님을 2대 원장으로 추천했다.

김원우 기자 wkwam@buddhapia.com

“혼탁한 세상 맑게 해야죠”

‘맑고 푸른 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여 스님



“나부터 마음을 맑게 하고 푸르게 가꾸어 주위를 맑고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연대로 마음순화에 초점을 두고 주위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려 합니다.”

1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맑고 푸른 시민연대’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정여 스님은 모든 것의 근원을 마음이 있음을 강조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를 통해 보다 새로운 차원의 시민운동을 펼쳐보겠다”는 정여 스님은 “기존 환경운동단체나 시민연대의 문제를 분석, 보완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나 행정기관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다”며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정여 스님은 “시민운동은 정치적 논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의 작은 일부터 잘못된 것은 꾸준히 감시하고 바르게 해결해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는 100여 명의 회원중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할 만큼 종교간의 벽을 허물어 버린 단체이다. 이는 종교 혹은 지역간의 화합으로 환경운동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는 맑고 푸른 시민연대의 입장을 반영한 것.

“시민을 위하고 세상을 맑고 푸르게 가꾸는 일에는 종교나 지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여 스님은 “앞으로 개신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지도자를 모셔서 보다 활발한 시민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맑고 푸른 시민연대는 16일 위원회 모임을 갖고 청소년 교육,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마음을 맑혀주는 소책자 제작, 화장실 문화 정착 등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정여 스님은 “무조건 개발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립과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존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051)852-541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실 개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남)는 8일 조계사 앞 상운중심 3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추진본부장 정남스님을 비롯한 집행위원장 양산스님, 정책기획위원장 학담스님 등 추진본부 관계자와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문화부장 해자스님, 교육부장 계성스님, 포교부장 상운스님 등이 참석했다.



천안 만경사 천불전 낙성법회

충남 천안시 만경사주지 청해는 3일 천불전 불사를 회향하는 부처님 집안 및 낙성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무량종 총무원장 해인스님, 불교지도자협회장 각성스님, 마포경찰서 상임 포교사 및 불교회원, 만경사 신도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불어 지도자 1천여명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예)는 2-3일 속리산 유스 타운에서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미래’를 주제로 제31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대불어 총재 정관스님, 회장 정여스님,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지원스님을 비롯해 어린이지도자 1천여 명이 동참했다.



백제불교 도래지 법성포 성역화 기공

백제불교도래지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는 7일 전남 영광 법성포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의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법갈사 조실 수산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대둔사 주지 보선스님,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불회사 주지 정연스님 등을 비롯해 2천여 명의 불자와 군민이 참석했다.

“정보화 시대 불자인재 양성”

선각종 종립 국제불교대학 이사장 정암 스님



“우리 대학의 교훈을 ‘정법 수행 교화’로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면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지혜와 자비로써 중생교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의 위의를 갖추도록 적극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4일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가진 대한불교 선각종 종립 불교교양대 ‘국제불교대학’의 이사장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은 종단 스님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창종 때부터 종립 불교대의 건립을 발원해 왔고 이번에 개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창종한 지 2년밖에 안된 신생 종단인 선각종이 스님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종립 불교교양대인 ‘국제불교대학’을 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암 스님은 “국제불교대학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화 국제화에 걸맞게 불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종단의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동참하자는 뜻과 함께 시대를 이끌어 가는 수행자상을

정립하는데 종단의 역량을 결집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학자나 유명강사 등을 초청한 특강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불교대학에는 선각종의 각 말사 주지 등 스님 70여 명이 입학했으며 2년 동안 근본불교, 불교사 등 경학과 더불어 습의, 신중작업 등 불교의식 전반도 공부하게 된다. 정암 스님은 “수행자는 늘 자신을 닦고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육과 연수로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시키는 일밖에 없다”면서 “선각종은 이번 국제불교대 개원을 계기로 더욱 중흥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불교 선각종은 호남지역에 본산을 둔 종단으로 재소자 교화,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유직 광주 지사장

현고 스님 환경의 날 국민포장

이병인 교수 · 전형근 씨 환경장관상



5일 제6회 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또 조지종 환경위원 이병인 교수(일양대)와 사회부 전형근 사회과장이 환경보존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을 수상했다.



갈월사 영탑(靈搭)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갈월사 경내



정문 ▼



▼ 조성된 영탑

영탑하기번호 양평군 제2000-3호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 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장대 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